

DJ 서거 16주기... 시민과 '김대중의 길'을 가다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 18·21일 추모행사... 연극·낭독회·음악회 등 무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일생 동안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예술로 되새기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추모식부터 연극, 낭독회, 음악회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김대중의 길'을 현재의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추모사업회)는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을 연다. 이어 신작 연극 '지도자 김대중'도 무대에 오른다. 추모사업회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과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정치인 김대중이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룬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다.

연극은 1967년부터 1979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격동적인 13년을 압축해 담았다.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목포에 출마해 박정희 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불법 선거를 뚫고 국회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시작해, 3선 개헌 저지 운동의 중심에 서서 효창 공원에서 대규모 반대 시국 연설회를 여는 장면까지 이어진다.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한 지도자의 성장과 결단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정재춘 작가는 "김대중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골 출신의 한 천재 사업가가 시대적 소명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기투하며 역사를 만들어갔는지, 그 역경의 오디세이를 극화하는 일은 설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인간적 깊이와 삶의 무게, 그리고 성취한 역사적 진실에 압도되면서도, 김대중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정진백 총괄기획, 정재춘 작가, 황태선 연출로, 배우 오일룡, 박수아, 이봉하, 최담, 서민정, 박유평, 김세



영화 '길위에 김대중' 스틸컷.

철, 엄선일, 공준표, 엄정인 등이 출연한다. 전석 무료. 21일 오후 2시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에서 '김대중-이희호 옥중서신 낭독회'와 '추모 음악회'가 이어진다. 옥중서신 낭독회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김대중이 이희호 여사와 주고 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족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걱정, 사형의 공포 속에서도 이어간 방대한 지적 여정이 무대에서 되살아난다. 낭독은 배우 김현경, 송한율이 맡고, 이상록 피아니스트의 서정적이고 현대적인 선율이 감정을 더한다.

추모 음악회에서는 민주와 평화를 주제로 한 무대가 펼쳐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불나비'로 잘 알려진 민중가수 최도은, 광주를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포크 가수 정용주, 한국 최초로 클래식페스티벌에 세 차례 초청된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무대에 올라 김대중 정신을 음악으로 기린다. 전석 무료 초청.

문기전 광주전남추모사업회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 제공>

의 서사는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기록'이라며 "훈돈의 시대를 버티낸 인동초의 정신을 이번 추모 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과 함께한 시간들이 울림과 공명으로 확장되길 바라며, 이번 추모식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치와 권력의 윤리를 다시 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흑산도에서 섬과 영화가 만났을 때

'제1회 2025 흑산 섬 영화제' 15~16일 흑산도 사리 일원 다큐멘터리 '파시'·축하공연 등



1964년 흑산도 예리에서 유랑 해상시장 '파시'가 열리고 있는 모습. <신안군 제공>

대한민국 최서남단의 섬, 흑산도(黑山島).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이는 바다와 짙푸른 산, 강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켜켜이 쌓인 돌담, 부지런히 항구를 오가는 사람들. 섬에는 섬만의, 흑산에는 흑산만의 풍경이 있다. 그 흑산도에서 섬과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이들이 펼쳐진다.

'제1회 2025 흑산 섬 영화제'가 오는 15~16일 흑산도 사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영화제는 'K-관광섬 흑산도 자산어보캡츠' 사업의 일환으로, 흑산도의 자연과 사람, 문화를 영상으로 재조명하고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15일 오후 6시 사리분교에서 열린다. 첫 순서는 '흑산 섬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다. '당신의 흑산도'를 주제로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섬을 도보로 여행하는 모습, 바다와 어민들의 일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풍경을 담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5편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에 앞서 오후 2시 50분 철새박물관에서 수상작 상영회가 열린다.

본행사에서는 초청작 다큐멘터리 '파시'를 만나 볼 수 있다. 과거 흑산도 바다 위에서 열렸던 유랑 해상시장 '파시(波市)'의 기억을 복원한 작품이다. 서해안 집단 어로문화의 중심이었던 파시의 현

장과 어민들의 생생한 증언, 지금은 사라진 삶의 풍경을 기록했다. 강제운 섬연구소장과 최현정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축하 무대도 준비됐다. 흑산도 주민인 잠전용사 유준열(90) 씨가 들려주는 하모니카 연주는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또 흥어판매 가게 조아홍의 대표 정태연씨가 직접 '흑산도 흥어 해체쇼'를 선보인다. 신안군 흥어철기학교를 졸업한 그의 현란한 칼놀림은 영화제의 색다른 볼거리가 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흑산 섬 트레킹-메이크업 노이즈'에서는 섬길과 산길을 함께 걸으며 흑산도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흑산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사리 산다이'는 서남해 섬 지역의 옛 유희문화를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조업을 마친 섬 청년들이 노래하고 춤추던 전통을 살려, 불빛 아래 공연과 노래가 이어지는 흥겨운 밤을 만든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흑산도 사리 전경.

선사시대엔 어떻게 음식을 조리했을까

국립광주박물관-호남고고학회 오늘 학술대회

선사시대 사람들은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고 조리했을까.

'조리'를 모티브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과 호남고고학회(회장 이정호)는 14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선사-고대의 식량 조리와 보존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1부에서는 가디언문화유산연구원 오승환이 '선사-고대의 식량 조리와 보존 방식의 변화'를, 대한문화재연구원 김은정이 '호남지역 고대 식량의 보존 방식'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문가 4명의 주제가 예정돼 있다. '장(醬) 만들기'와 '이용'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류아라, 함평군), '양조(釀造)와 이용

(利用)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조운재, 고려대), '고고학으로 보는 고대의 장승 의례와 음식'(김은경, 세종문화유산재단), '문헌 자료로 보는 고대의 식량과 소비'(강나리, 충북대) 등이 이어진다.

주제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이정호(동신대)를 좌장으로 김민구(전남대), 박유미(한국체육대), 최정아(국립광주박물관), 한옥민(대한문화재연구원)토론이 펼쳐진다.

한편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지난해에는 식량을 주제로 고대, 선사시대 문화를 다면적으로 살펴봤다"며 "이번에는 식량의 소비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조리'와 연관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교원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성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주관한 2025 '문화예술교육 연수 및 아카데미·서로배움' 교원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 '아이엠 쌤'이 최근 성료됐다.

'나를 담은 문화예술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광주지역 유·초·중·고 교원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체험·생활·협

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협력해 교원 대상 모집, 연수 이수증 발급 등 행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수업 사례 발굴과 후속 네트워크 운영, 수업 적용 자료 공유 등 교실 연계 지원이 함께 추진되며 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